



## 1: 첫 데이트

내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한 남자를 만났다. 그 남자는 키가 크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처음에 그를 봤을 때 나는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그는 매우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에게 말을 하기 어려웠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여름 방학이 다가왔다. 나는 방학이 시작하기 전에 그와 꼭 한 번 말을 해 보야겠다고 결심을 했다. 나는 용기를 내고 그의 수업이 있는 교실에서 기다렸다. 하나, 둘, 셋! 멀리서 그가 수업이 끝나고 걸어 오는 것이 보였다. 나의 가슴은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다. ‘그래, 오늘은 꼭 용기를 내보자. 이번 기회가 아니라면 나는 평생 그에게 말을 못할 수도 있어.’

나: “저기 혹시 나를 알아? 나는 너랑 같은 전공을 공부하는 이은수야.”

민호: “아, 당연하지. 안녕? 드디어 이렇게 처음으로 말을 하네, 근데 무슨 일이야?”

나: “아... 그냥... 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너에게 말을 하고 싶었어. 혹시 시간이 괜찮다면 나와 함께 점심 먹을래?”

민호: “어? 아 그래? 어.. 근데 어떡하지? 내가 지금 이 수업 후에 바로 수업이 있어서.. 혹시 괜찮다면 나중에 먹을 수 있을까?”

나: “알았어. 나는 네가 수업이 있는지 몰랐어. 수업 열심히 들어, 방학 잘 보내고...”

가슴이 아팠다. 수업이 있어서 가야 한다는 민호의 말은 핑계 같았다. 물론 진짜로 수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가슴이 아팠다. 나는 실망을 하고 울면서 집에 돌아왔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기 때문에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 누구지?’ 핸드폰을 확인해 봤다. 그 문자는 바로 민호한테서 온 것이었다.

문자: “나야, 민호. 오늘 미안해. 수업이 있어서 점심 같이 못 먹어서 미안해. 혹시 너무 늦지 않았다면, 우리 내일 같이 점심 먹을래?”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민호가 나에게 밥을 먹자고 했다!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었다. 방금 전에는 나는 너무 우울하고 슬펐는데, 갑자기 세상이 달라 보였다.

문자: “나야, 은수. 아 정말? 내일? 그래. 좋아. 그러면 어디서 만날까?”

나는 최대한 내 기쁜 마음을 감추려고 노력했다. 하하하. 하지만 웃음을 멈출 수 없었다. 5분 후에 답장이 왔다.

문자 “내일 그럼 서울에 있는 한 카페에서 만나자. 맛있는 거 사줄게. 내일 날씨가 춥다고 들었어. 따뜻하게 입고 나와. 그럼 내일 봐 은수야”



믿을 수가 없었다! 친절하한 말투, 그리고 우리가 내일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을!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었다. 우선 내일 무엇을 입을지 정하기 위해 옷장을 확인했다. 내일 날씨가 춥더라도 같이 처음 하는 식사일 거라서 여성스러운 원피스를 입어야 한다. 내일은 화장도 예쁘게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다음날 아침-

벌써 11 시였다. 한 시간 안에 준비하고 나가야 되어서 빨리 샤워부터 했다. 샤워를 하고 로션을 바르고 화장을 했다. 오늘은 특별히 내가 아끼는 립스틱을 발랐다. 옷은 어제 골라둔 원피스를 입었다. 거기에 추위에 대비해 목도리와 장갑을 챙겼다. ‘아... 떨린다. 하지만 너무 행복하다!’

다행히 늦지 않게 도착했다. 민호는 이미 도착해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호: “안녕? 오늘 날씨가 많이 춥다, 뭐 마실래?”

나: “음.. 나는 커피 마실게, 커피는 내가 살게. 너는 뭐 마실래?”

민호: “하하, 커피도 내가 사고 밥도 내가 사려고 했는데. 우리 오늘 첫 데이트라 내가 살게.”

나: “첫... 데이트...?” 나는 민호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민호: “무슨 말이야? 오늘이 우리의 첫 데이트야!” 민호는 내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이 웃으면서 말했다.

민호: “어? 오늘 우리가 데이트 하는 게 아니야? 처음에 내가 나에게 말을 걸었을 때 얼마나 기뻐는지 몰라.” 민호가 말을 하면서 부끄러운 듯이 내 눈을 쳐다봤다.

나: “아.. 있잖아..... 너무 당황스러워서. 물론 나는 네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꼭 말을 하고 싶었어. 하지만 너는 인기도 많고,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나한테 관심이 있을지 정말 몰랐어.....”

민호: “그래서 나는 네가 좋아. 너는 네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 다른 여자애들과 달라. 나도 내가 여자한테 처음으로 고백하는 거야. 많이 떨린다. 하하.” 민호가 부끄러운 듯이 다시 한번 웃었다.

그렇게 시작되었다. 우리의 첫 데이트는. 민호는 현재 나의 첫 남자친구이고, 나는 민호의 첫 여자친구이다. 믿을 수가 없었다. 처음에 민호를 봤을 때 민호는 나와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같았다. 하지만 지금 민호는 나에게 아주 소중한 친구일 뿐만 아니라 애인이다. 우리의 첫 데이트에 민호가 나에게 비밀을 말해 주었다. 바로 민호도 여름방학이 되기 전에 나에게 꼭 고백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호는 내가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다고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바로 연애했다. 현재 나는 민호와 하루하루를 좋은 추억을 쌓으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세상에 고백을 망설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고민 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고백해 보세요.”

## 첫 데이트: English Translation

*The English translations to the stories were written entirely by a native English speaker (Will at HowtoStudyKorean.com). Any English translations that sound unnatural are deliberate in an attempt to directly translate the story.*

내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한 남자를 만났다. 그 남자는 키가 크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When I entered University, I met a man. That man was a tall and beautiful man (/person).

처음에 그를 봤을 때 나는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그는 매우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에게 말을 하기 어려웠다.

When I first saw him, I fell in love at first sight. However, because he was very popular, it was difficult to talk to him.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여름 방학이 다가왔다. 나는 방학이 시작하기 전에 그와 꼭 한 번 말을 해 봐야겠다고 결심을 했다.

Time went by like that, and then summer vacation came/approached. Before vacation started, I decided that, no matter what, I must try to talk to him once.

나는 용기를 내고 그의 수업이 있는 교실에서 기다렸다. 하나, 둘, 셋! 멀리서 그가 수업이 끝나고 걸어 오는 것이 보였다.

I summoned up the courage, and waited at the classroom where he has class. One. Two Three! I saw him finish class and come walking.

나의 가슴은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다. ‘그래, 오늘은 꼭 용기를 내보자. 이번 기회가 아니라면 나는 평생 그에게 말을 못할 수도 있어.’

My heart/chest started to pound/race. ‘Okay today I must have the courage/be brave. If it is not this time, I won’t be able to talk to him for my whole life.’

나: “저기 혹시 나를 알아? 나는 너랑 같은 전공을 공부하는 이은수야.”

Me: “Excuse me... I was wondering... do you know me? I am Eun-su Lee, we are studying the same major.”

민호: “아, 당연하지. 안녕? 드디어 이렇게 처음으로 말을 하네, 근데 무슨 일이야?”

Minho: “Ah, of course! Hi! Finally we talk (like this) for the first time. But... for what reason are you introducing yourself to me? (What’s up? What’s on your mind?)

나: “아... 그냥... 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너에게 말을 하고 싶었어. 혹시 시간이 괜찮다면 나와 함께 점심 먹을래?”

Me: “ah... no reason... I wanted to talk with you before vacation started. I was wondering... if the time is okay; would you like to have lunch with me?”

민호: “어? 아 그래? 어.. 근데 어떡하지? 내가 지금 이 수업 후에 바로 수업이 있어서.. 혹시 괜찮다면 나중에 먹을 수 있을까?”

Minho: “Uh? Ah... okay. But, what should we do? I have a class right after this one... so, if it is okay, would you be able to eat later?”

나: “알았어. 나는 네가 수업이 있는지 몰랐어. 수업 열심히 들어, 방학 잘 보내고.....”

Me: “Okay. I didn't know that you had class. Listen (study) hard in class, and have a good vacation...”

가슴이 아팠다. 수업이 있어서 가야 한다는 민호의 말은 핑계 같았다. 물론 진짜로 수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가슴이 아팠다.

My heart was sore/ached (I was heartbroken). Him saying that he had to go because he had a class was probably/likely an excuse. Of course, even though it is possible that he actually had class, my heart still ached for some reason.

나는 실망을 하고 울면서 집에 돌아왔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기 때문에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다.

Disappointed and crying, I returned home. I just lay on my bed because I didn't want to do anything.

하지만 바로 그때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 누구지?’ 핸드폰을 확인해 봤다. 그 문자는 바로 민호한테서 온 것이었다.

But, at that instant. My phone vibrated/rang. ‘Who could it be?’ I checked my phone, and it was (none other than) Minho who the message came from.

문자: “나야, 민호. 오늘 미안해. 수업이 있어서 점심 같이 못 먹어서 미안해. 혹시 너무 늦지 않았다면, 우리 내일 같이 점심 먹을래?”

Text: “It's me, Minho. Sorry about today. I couldn't eat lunch together because I had class. I was wondering... if it is not too late, shall we eat lunch together tomorrow?”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민호가 나에게 밥을 먹자고 했다!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었다. 방금 전에는 나는 너무 우울하고 슬펐는데, 갑자기 세상이 달라 보였다.

I couldn't believe it. Minho said ‘let's eat’ to me. I was so happy. (Even though), just a moment ago I was really depressed and sad, but suddenly the whole world looked different.

문자: “나야, 은수. 아 정말? 내일? 그래. 좋아. 그러면 어디서 만날까?”

Text: “It's me, Eun-su. Ah, really? Tomorrow? Okay. That's good. Then where should we meet?”

나는 최대한 내 기쁜 마음을 감추려고 노력했다. 하하하. 하지만 웃음을 멈출 수 없었다. I tried to conceal my very happy inner emotions. Hahaha. But, I couldn't stop smiling.

5분 후에 답장이 왔다.

5 minutes later, a response arrived.

문자 “내일 그럼 서울에 있는 한 카페에서 만나자. 맛있는 거 사줄게. 내일 날씨 춥다고 들었어. 따뜻하게 입고 나와. 그럼 내일 봐 은수야”

Text: “Let’s meet at a café in Seoul tomorrow, then. I will buy you something delicious. I heard that the weather tomorrow will be cold. Wear something warm, and then come out. See you tomorrow, Eun-su.

믿을 수가 없었다! 친절하 말투, 그리고 우리가 내일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을!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었다. 우선 내일 무엇을 입을지 정하기 위해 옷장을 확인했다.

I couldn’t believe it! His nice way of speaking, and that we will eat lunch together tomorrow. I was so happy! First things first, in order to set what I will wear for tomorrow, I checked my closet.

내일 날씨가 춥더라도 같이 처음 하는 식사일 거라서 여성스러운 원피스를 입어야 한다. 내일은 화장도 예쁘게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Even if the weather is cold tomorrow, it will be the first time we eat together, so I must wear a feminine one-piece (dress). I also decided that I must put my makeup on beautifully tomorrow.

-다음날 아침-

-The next day in the morning-

벌써 11 시였다. 한 시간 안에 준비하고 나가야 되어서 빨리 샤워부터 했다. 샤워를 하고 로션을 바르고 화장을 했다. 오늘은 특별히 내가 아끼는 립스틱을 발랐다.

It was already 11 o’clock. Within one hour, I needed to get ready and leave, so I needed to shower quickly. After showering, I put lotion and makeup on. I also put on the special lipstick that I was saving (/treasured).

옷은 어제 골라둔 원피스를 입었다. 거기에 추위에 대비해 목도리와 장갑을 챙겼다. ‘아... 떨린다. 하지만 너무 행복하다!’

I put on the one-piece that I picked out yesterday. In preparation for the cold, I wore gloves and a scarf. ‘Ah, I am nervous. But, I am so happy.’”

다행히 늦게 얇게 도착했다. 민호는 이미 도착해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Thankfully, I wasn’t late when I arrived. Minho had already arrived, so he was waiting for me.

민호: “안녕? 오늘 날씨가 많이 춥다, 뭐 마실래?”

Minho: “Hi! Today is so cold. What shall we drink?”

나: “음.. 나는 커피 마실게, 커피는 내가 살게. 너는 뭐 마실래?”

Me: “Umm... I will drink coffee. I will buy the coffee. What would you like?”

민호: “하, 커피도 내가 사고 밥도 내가 사려고 했는데. 우리 오늘 첫 데이트라 내가 살게”

Minho: “Ha, I intended to buy coffee and food as well. Today is our first date, so I will buy them.

나: “첫... 데이트...?” 나는 민호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Me: “First... date?” I couldn't believe what Minho said.

민호: “무슨 말이야? 오늘이 우리의 첫 데이트야!” 민호는 내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이 웃으면서 말했다.

Minho: “What do you mean? Today is our first date!” Said Minho as he laughed as if my reaction was funny

민호: “어?, 오늘 우리가 데이트 하는 게 아니야? 처음에 네가 나에게 말을 걸었을 때 얼마나 기뻐는지 몰라.” 민호가 말을 하면서 부끄러운 듯이 내 눈을 쳐다봤다.

Minho: “Uh?. Today isn't a date? When you first started to talk to me, you have no idea how happy I was.” Said Minho as he stared (blushingly) at my eyes as if he was shy.

나: “아.. 있잖아..... 너무 당황스러워서. 물론 나는 네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꼭 말을 하고 싶었어. 하지만 너는 인기도 많고,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나한테 관심이 있을지 정말 몰랐어.....”

Me: “Ah... you know... I am too shy. Of course, because I like you, I had to talk to you. But, you are so popular, and you have a lot of friends, so I really didn't think that you would be interested in me.”

민호: “그래서 나는 네가 좋아. 너는 내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 다른 여자애들과 달라. 나도 내가 여자한테 처음으로 고백하는 거야. 많이 떨린다. 하하.” 민호가 부끄러운 듯이 다시 한번 웃었다

Minho: “That is why (therefore) I like you. You don't know how charming/attractive you are. You are different from other girls. This is the first time I have confessed (my love) to a girl. I am very nervous, Haha.” Minho laughed again as if he was shy.

그렇게 시작되었다. 우리의 첫 데이트는. 민호는 현재 나의 첫 남자친구이고, 나는 민호의 첫 여자친구이다. 믿을 수가 없었다.

That is how it started. Our first date. Minho is now my first boyfriend and I am his first girlfriend. I can't believe it.

처음에 민호를 봤을 때 민호는 나와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같았다. 하지만 지금 민호는 나에게 아주 소중한 친구일 뿐만 아니라 애인이다.

When I first saw Minho, I thought he was probably from another world. But, now Minho is not only a very precious friend to me, but also my boyfriend.

우리의 첫 데이트에 민호가 나에게 비밀을 말해 주었다. 바로 민호도 여름방학이 되기 전에 나에게 꼭 고백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Minho told me a secret on our first date. Minho, himself, had also been thinking that he definitely had to confess his love to me before summer vacation.

하지만 민호는 내가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다고 했다.

But, because he thought that I would not be interested in him he was hesitating.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바로 연애했다. 현재 나는 민호와 하루하루를 좋은 추억을 쌓으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세상에 고백을 망설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the thing that I wanted to do the most in University (life) was to date. Now, day after day I happily pass the time piling up good memories with Minhoo. I want to say something to everybody who hesitates in confessing (what they want to say).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고민 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고백해 보세요.”

“If you like somebody, don't stress about it, pick up your courage and try confessing.”

## 첫 데이트: Difficult Words, Phrases and Grammatical Principles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 To fall in love at first sight

시간이 흐르다: Literally translates to “for time to flow.” When written like this, it takes the meaning of “As time goes by...” Identical in meaning to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더욱더욱 강해졌어요 = As time went by, I got more and more strong

~아/어야겠다고 결심을 했다: Grammatical principle used to say that you have made up your mind and decided that you will definitely do something. A combination of the grammatical principles: “must” (~아/어야겠다고: Lesson 46); a quoted sentence “~ㄴ/는다고” (Lesson 52), and the word “to decide” (결심하다). For example:

내일 그 여자와 얘기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 I decided that I must talk with that girl tomorrow

용기를 내다: To get the courage to do something

두근두근: An onomatopoeia for something pounding or throbbing

당연하지: An informal way to say “Of course!” The formal equivalent would be “당연하죠” (This word is introduced in Lesson 79). The ~지/죠 endings will be introduced in Lesson 93, but the meaning of “~지/죠” does not affect the meaning of the word “당연하지/죠.”

~네(요): Placed at the end of a sentence to indicate that one is surprised or impressed at what somebody else is doing or what is happening. Very similar to ~군/구나/군요. For example:

선생님! 영어를 너무 잘하시네요! = Teacher! You speak English very well!

This grammatical principle is introduced in Lesson 83.

근데: But, however (The construction of this word is discussed in Lesson 77)

무슨 일이야?: Why?/What happened?/What is the reason for this?

어떡하지: An informal way to say “what should I/we do?” The formal equivalent would be “어떡하죠.” The ~지/죠 endings will be introduced in Lesson 93, but the meaning of “~지/죠” does not affect the meaning of the word “어떡하지/죠.”

핑계: A difficult word that means “excuse.” A more common way to say “excuse” is “변명”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 A metaphor to indicate that one is very happy

우울하다: To be depressed



~는데: A grammatical form that is discussed thoroughly in Lessons 76 and 77. Though ~는데 can have many meanings, it typically connects two clauses to allow the first clause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upcoming second clause. It also carries with it a slight meaning of “even though.” For example: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 I am eating rice, (even though) I don't really like it

방금 전에는 나는 너무 우울하고 슬펐는데, 갑자기 세상이 달라 보였다 = (Even though) just a moment ago I was really depressed and sad, suddenly the whole world looks different.

감추다: To cover something up. (마음을 감추다” = to cover up one's feelings).

말투: One's way of speaking. (친절한 말투 = a nice way of speaking/speaking nicely).

~더라도: Connects two clauses to mean “even if.” For example:

공부를 하더라도 시험을 잘 못 볼 거예요 = Even if I study, I will do poorly on the test  
This grammatical form will be introduced in Lesson 99.

~에 대비해: To prepare for something (추위에 대비해 = to prepare for the cold).

떨리다: Used to indicate that one is nervous. Often coupled with “마음” (마음이 떨리다).

무슨 말이야: What do you mean? What are you trying to say?

말을 걸다: To start to talk with somebody, to strike a conversation with somebody

있잖아(요): A common way to start a sentence when you don't know what you are going to say. Similar to “Uhhh..” in English. This grammatical form will be introduced in Lesson 90.

~르/을 뿐만 아니라: Not only one thing, but another thing as well. For example:

그것은 맛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싸요 = not only is that thing not delicious, but it is expensive  
민호는 나에게 아주 소중한 친구일 뿐만 아니라 애인이다 = Not only is Min-ho a precious friend, but also my boyfriend

This grammatical form will be introduced in Lesson 95.

좋은 추억을 쌓다: To build/make good memories